

[평론집]

문학, 자타의 시각속에 내세우다

장학규 저

료녕민족출판사



필명 리지

1964년 흑룡강성 해림시 출생.

1984년 소설 “청춘과 불구자”로 등단. 현재까지 시, 소설, 수필, 평론 등 300여편 발표. 제1회 흑룡강성소수민족문학상, 《문학과 예술》 신인평론문학응모 최우수상 등 다수 수상.

흑룡강성작가협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이사, 중국소수민족작가학회 회원.

[평론집]

문학, 자타의 시각속에 내세우다



辽宁民族出版社淘宝店
<http://lnmz2013.taobao.com>

ISBN 978-7-5497-1305-9



9 787549 713059 >

定价: 28.00元

[평론집]

문학, 자타의 시각속에 내세우다

장학규 저

료녕민족출판사

© 张学奎 2016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文学, 摆在我眼前: 朝鲜文 / 张学奎著.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6.4

ISBN 978-7-5497-1305-9

I. ①文… II. ①张… III. ①朝鲜族—少数民族文学评论—中国—当代—文集—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07.919-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16) 第075631号

文学, 摆在我眼前

WENXUE BAIZAINIWO YANQIAN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 110003

印 刷 者: 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 面 尺 寸: 145mm×210mm

印 张: 7

字 数: 170千字

印 数: 1-350

出 版 时 间: 2016年4月第1版

印 刷 时 间: 2016年4月第1次印刷

责 任 编 辑: 成玉贤

封 面 设 计: 杜 江

责 任 校 对: 李 京

标准书号: ISBN 978-7-5497-1305-9

定 价: 28.00元

法律顾问: 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 址: www.lnmzchs.com

举报电话: 024-23284336

邮购电话: 024-23284335

联系电话: 024-23284340

淘宝网店: <http://lnmz2013.taobao.com>

작가의 말



문학은 나의 분신이고 평론은 나의 사명이다

내 문학그라프는 들쭉날쭉 갈래가 여럿이다. 소설로 시작한 문학공부가 중간에서 어떻게 음차양차로 평론계로 들어서게 되었고 단행본은 오히려 수필집을 먼저 출간하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해가 지나서 두번째로 나온 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소설집이었고 이제 겨우 내 문학의 사명인 평론집을 내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생활난에 부대끼면서 짹짹 쓴 평론글이 50여편은 좋지 된다. 그런데 황하를 건너고 장강을 뛰어넘으면서 십수차 이사를 하다보니 원본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육필이 대부분이었던만큼 타이핑을 한 파일이 보존되어있을리 만무했다. 손칼로 오려서 스크랩을 해둔 것이 어느새 분실된지도 모르고 분주히 떠돌다가 어느날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보니 종적없이 사라져있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다인작품집에 오른것과 가까운 지인들이 찾아서 보내준것을 가까스로 모아보니 고작 10여편이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둘수 없다는 생각이 든것이 바로 그 시점이다.

글은 내 흔적이고 내 력사고 내 얼굴이다. 용케 한

변 왔다가는 인생에 나 스스로 내 분신 같은것을 지우거나 가리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할수는 없다. 평론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여직껏 평론집을 적잖이 보아왔지만 문학사류형이 대부분이었던것 같고 학술론문이 그다음을 따른것 같다. 그리고 특별조명형식으로 여러 사람이 어느 한 작가를 집중적으로 다룬것을 묶어낸 책이 주를 이루었던것 같다.

하지만 나는 문학일선에서 창작실천과 더불어 평론을 해왔기에 모두가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평이다. 그것도 같은 시간대에 함께 활약했던 작가들의 창작작품을 현장감있게 평론해왔다. 북방문단을 이끌어왔던 한춘선생의 의도적인 추동과 갈라놓고 운운할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세기 8~90년대는 우리 문학의 전성기였다. 그때 한춘선생은 문체갱신을 추진하고있었고 새로운 문학사조를 이끌고있었다. 그 자기마당에 말려들어갔던것은 나의 행운이기도 하다. 문학쟁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와중에 내 작품도 덕분에 몇번은 평론을 담게 되었다.

이제 내가 한 평론과 남이 나를 평한 글을 함께 책으로 묶는다. 내용과 형식 모두가 색달라서 제목을 붙이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었다. 좋은 제목 하나 골라서 책제목으로 할수 있는 소설집이나 시집 또는 수필집과는 달리 평론집은 그게 기어가 잘 안 맞물려 돌아가는게 사실인데다가 내 평론만이 아니고 남이 나를 저울질한 글도 있기때문이었다.

이 평론집 추진과정에 여러모로 도움을 준 원 흑룡강조선족창작위원회 박일주임과 내가 몸담고있는 흑룡강신문

사 동료들, 그리고 문학친구인 한영남시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울러 전번 소설집에 이어 이번 평론집 출판비용까지 마련해주신 얼굴 숨긴 모 기업가님께 허리 굽혀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10월



차 례

작가의 말.....	001
김학철작품의 문체론적특성	003
윤림호소설의 미, 료리학적 취향진단	010
자투리 에피소드로 엮은 대형 화폭.....	022
벽소설가 김군과 그의 문학세계	033
김경화는 누구인가?	045
변혁기의 인생을 감오하며	056
리화 수필에서 드러나는 작가적 스펙	069
비정상죽음으로부터 보는 비인간적 사회속성	080
두번째로 맞다든 운명의 시련	090
구겨진 현실사회와 대응되는 황당한 인물형상들	096
새로운 문예컨텐츠의 가능성	104
분노뒤에 찾아드는 사색	110
“관광문학”의 기와 정	115
숙명이 만들어낸 선물	122

진정한 인간성과 인간생활에 대한 동경	135
시조를 위한 변호	138
층계를 뚫는 사나이	142
맛과 멋과 향기	144
산동, 그 무궁한 문학공간과 발전잠재력	147

부록: 나의 글에 대한 평론

디아스포라와 노스텔지어의 또다른 해석법	한영남 173
정갈한 샘물은 갈한 목을 제때에 추겨준다	허창렬 189
탈출과 회귀의 언덕에서	양정옥 195
“사거리”에 매달린 궁금증의 미학	김룡운 200
세번째의 눈	전경엽 206
자조와 풍자의 묘미	김영옥 210



문학, 자타의 시각속에 내세우다



김학철작품의 문체론적특성

현재 우리 문단에서 어느 작가가 가장 독자들의 환영을 받느냐 묻는다면 그 대답을 넘두에 두고 진행된 흑룡강신문사의 한차례 조사에서 -김학철 한분만 추천합니다-는 한 독자의 글이 힘있는 답복일것이다.

비록 그것이 지나치게 어리고 감정적이기는 했으나 종래로 한 작가가 독자(일개인일지라도)의 마음을 통채로 독차지했다는 사실이 드물었다는걸로 미루어보면 김학철선생에게 남다른 신통한 재주가 있음을 부인할수 없는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김학철선생의 문체를 연구하게 된 시초의 동기였다.

웅근 작품에 일관된 작가의 개성(스필)은 주로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체는 언어학에서 연구하는 과제이고 문학작품에서의 언어는 형식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니까 필자의 이 글은 제목 자체부터 사상정보다 그 예술성을 더 론하게 되었다는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형식의 내용에 대한 의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그만 형식의 독립적인 심미적의의와 가치

를 흘시하고말았다.

모종 견지에서 말할 때 문학의 흥성은 형식과 내용이 똑 같은 분동으로 작용한 결정체라고 할수 있다. 중국문학사에서 백화문이 일대 문학혁명을 가져왔다면 조선에서도 신소설이 문단을 활기띠게 하였다. 그렇다는 력사가 또한 필자가 속이 켜김이 없이 한 문학위인의 문체를 진일보 탐구하게 된 필연적인 근거였다.

그러면 김학철선생의 작품에서 구경 어떤 문체론적 특성들이 표현되었는가를 분석해보자.

가장 돌출하게 표현되었고 또 다른 작가들과 가장 구별되는 특성은 어음수단의 사용에서 나타난다.

선생은 모든 작품에서 의식적으로 생활과 밀착된 인민어, 구두어를 골라 썼다. 말체의 색채를 가진 문법수단의 사용은 두말할것 없이 독자와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친절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형상성과 생동성을 기한다는 각도에서 그리고 언어를 파악함으로써 상상으로 재창조한다는 언어예술의 특점에서 볼 때 언어는 생활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표현적효과는 더 빠르고 더 좋은것이다.

일례로 큰 과문을 일군 잡문 “동서남북풍”의 서두를 보기로 하자.

“풍향기는 바람이 부는대로 나뭇기기마련이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다 순응만 하면 되니까. 팔자치고는 상팔자이다. 그러나 사람은 필경 풍향기가 아니므로 바람이 부는대로 분주살스레-이리 나뭇기고 저리 나뭇기고만 할수 없다. /

지난 세월 동풍에 돛을 달고 만부부당의 기세로-장비

야 내 배 다칠라-내닫던 량반들이 요즘에 와서는 또 서풍
에 신바람이 나서-콩엿 사먹고 버드나무에 올라가는 개모양-
기염만장하는것을 보면/

“이 좋은 구경을 놔두구…곡마단구경을 갈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옥지거리가 절로 난다…”

미사려구라곤 한마디도 없이 지문을 꾸몄다는 사실보
다 그것을 통해 반영된 작가의 증오의 감정이 남달리 진실하
다는 사실이 놀라운것이다. 물론 그 진실성을 안받침해준것
은 숙련된 대중어란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특성은 어느 한편의 작품에만 국한된것이 아니
라 “답알파문”, “쪼로르기”, “심상찮은 소경력”, “사색하
는 동물”을 비롯한 선생의 모든 잡문에 관통된것으로서 작자
는 그것으로 독자와의 호흡의 통일을 이룩하였으며 훌륭
한 심미적가치를 창조하였던것이다.

그리고 토사용에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방한 대격
토 “를/을”과 복수토 “들”을 희한하게 많이 썼는데 주로는 소
설에서 강조의 표현적효과를 위해서였다.

“네번째총각”에서 필요없이 사용된 복수토 “들”이 27개
였고 “를/을”은 24개였다. “고민의 표준”도 7:17의 비례
로 썩여졌다.

장편소설 《걱정시대》는 더구나 “들, 를/을” 천지인데 미
치 통계해낼 방법이 없어 흑룡강신문 진달래부간(1985년 4
월 6일부)에서 발췌한 대목을 보았는데 만자남짓한 글에 놀
랍게도 그 비례가 23 : 30이었다. 이외에도 “를” 대신 “들
을”을—례하면 세면주머니들을, 뼈라들을 등—쓴 곳이 5곳이
나 되었는데 이런 “군더더기”는 글체를 의식적으로 말체

의 형태로 꾸며놓아 강조외에도 예상밖의 표현적효과를 거두었으니 이를테면 작자와 독자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화기에애한 기분을 이룬것이다.

자명한바 이런 심리적접근은 독자들을 끌고 나아가서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읽도록 유혹하는것이다. 작품은 우선 읽을 맛이 있어야지 그러참으면 실패작이라 할수밖에 없다. 모름지기 선생은 읽을 맛에 상당한 공력을 들인것이다.

다음은 형상어의 대량적인 사용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전형적인 사실과 인물을 형상화의 수법을 통하여 독자의 정서에 미학적으로 작용하게 하는것이다. 아무리 생신한 자료라 하더라도 형상어를 떠나서는 독자들의 공명을 자아내기 어려운것이다. 따라서 독후미감도 운운할 화제가 못되는것이다.

선생은 “로신의 방향”에서 “우리는 로신선생댁 문앞에 다다르자 몸속에 꼴딱 채워가지고온 ‘연료’가 다 들어나서 단 한치도 앞으로는 더 나갈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는 표현으로 권위를 앞두고 의지가 나약해진 인간을 맥맥한 기계에 비유함으로써 생동성을 배로 끌어올렸으며 “오염된 량심”에서 “국민당군대가 온것을 꺼리여 자란이들은 슬슬 다 피해버린 까닭에 (나는 국민당군대가 아니요 하고 웨칠수도 없는 일이였다.) 우리를 환영한것은 네댓살에서 열두어살까지의 어린 공민들뿐이였다.”처럼 “어른”을 “자란이”로, “어린애들”을 “어린 공민들”로 바꾸어 씀으로써 마치도 그 장면이 눈앞에 살아움직이는듯 만들었다.

이밖에도 형상적이고 우습강스러운 표현을 통해 작가의 애증을 토로하기도 했다. 형상어에 의한 웃음의 화폭

은 선생의 일대 특징이다. 독자들은 웃음속에서 심미적감수를 받게 되고 따라서 한차례 교육을 받게 된것이다. 이것은 일부 작가들이 마치 선교사인듯 분장하면서 화려한 언사들을 지루하게 마구 내뿜는 현실과 완전히 대립되는 김학철적인 개성 내지 문체이다.

선생은 인물묘사에서도 장황한 서술체를 회피하고 형상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그려내기를 즐겼는데 그렇게 그려낸 인물들은 완전완미형의 랭형동물인것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고 피와 살이 있는 생활적인 인간이었다.

특히 대표작 《걱정시대》를 보면 거의 모든 장절마다 실없는 “말장난”이 있었다. 지어 싸움마당에서도 례외가 아니었다. 이런 “말장난”은 어디까지나 속되고 용숙한 마음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생활적인 진정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제 그 례 하나를 들어보자.

“트럭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였을 때 신명이 난 ‘오썰로’가 저도 모르게 뛰여일어나 ‘오-이-’ 하고 웨치며 두손을 흔드니 적재함우의 놈이 돌아보고 마주 손을 흔들며 굽인돌이로 돌아갔다. “저자식이 나를 보구 좋아하지 않는가!”

“오썰로”가 신기로와하며 감탄 비슷이 말하였다.

“마점산장군을 알아본게지.” 마점산은 “오썰로”의 성명이다.

“아니야, 초록은 동색이야. 그놈두 먹자주의가 틀림없어.”

“오썰로”의 먹자주의는 유명하였다.

“그 왜놈의 새끼, 왜 한방 갈길 생각을 안하구 손을 흔들어.”